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1)

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简论-韓國語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中 科

高 枝 良

2011年 8月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1)

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简论-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咳 宣

高 枝 良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8月

高枝良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1年 8月

목 차

역자서문.....	1
제1장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특징.....	3
제1절 제2언어와 제2언어 교육.....	3
제2절 제2언어교육의 특징.....	9
제3절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특징.....	17
제2장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	22
제1절 제2언어 교육의 역할과 교육의 목적.....	22
제2절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목적.....	28
제3절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내용.....	32
제3장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원칙.....	43
제1절 제2언어 교육의 발전개황.....	43
제2절 제2언어 교수법의 발전 추세.....	45
제3절 교육원칙 확립과 지도사상.....	49
제4절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원칙.....	51

역자서문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란 중국어가 제1언어가 아닌 외국인, 혹은 중국 내 소수민족을 상대로 하는 중국어 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국어 뿐 아니라 모든 외국어에 대한 강의는 분명 모국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전 강의에 적용하는 교사나 강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중국어 학습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중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교사가 중국어에 대한 정확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대한 적절한 교수법을 익혀 강의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 책은 다년 간 대외한어 교육에 종사해 온 베이징위엔대학의 리우원 교수가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특징, 목적, 내용, 원칙 등을 상세하게 집필한 책으로써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및 강사들에게 교육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번역논문의 원저는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 중에서 제1장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특징, 제4장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 제6장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원칙을 발췌해 번역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저의 목차와 본 번역논문의 목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둔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역주를 첨가했는데 원저자의 주와 구별하기 위해 역주는 각주로 처리하였고, 원문의 주는 미주로 처리하였다.

한편 번역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漢語(한어)”를 모두 중국어라고 번역하는 것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 외에, 사용인구가 가장 많은 한족의 언어로서 중국어를 대표하는 언어를 지칭한 경우에는 “한어”라고 번역했고, 외국인 입장에서 학습하는 중국의 언어를 지칭한 경우에는 “중국어”로 번역했다. 즉 이 논문에서는 한어와 중국어란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동일한 언어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한자를 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번체자를 사용하였으나, 원문에서 중국어의 단어나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간체자를 사용해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통해 중국어 학습이 모국어 학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중국어를 학습하거나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특징

중국 여러 민족들은 각자의 언어를 습득한 후, 다른 민족의 언어 혹은 외국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런 유형의 언어교육을 제2언어 교육이라고 한다. 중국내 소수민족 혹은 외국인들이 자민족언어를 습득한 후 중국어를 학습한다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2언어 교육은 모국어 교육과 구별되며,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역시 다른 제2언어 교육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1장에서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제1절. 제2언어와 제2언어 교육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을 논하기 전에 우선 제2언어와 제2언어 교육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언어 관련 개념

(1) 제1언어와 제2언어

여기서 말하는 제1언어와 제2언어는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하는 시간 순으로 구별되는데, 태어나서 처음 접하고 습득하게 되는 언어를 제1언어라 하고, 제1언어 습득 후 학습하고 사용하는 또 다른 언어를 제2언어라고 한다. 중국 신장지역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예로 들어보면, 그들의 제1언어는 각각 위구르족어와 카자흐족어이고, 학교 입학 후 배우게 되는 한어(漢語)가 바로 제2언어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영어나 일어 등 다른 국가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 역시도 제2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족에게 제1언어는 한어이고, 이들

이 위구르족어나 카자흐족어, 혹은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를 배운다면 이를 제2언어라 통칭한다.(일반적으로 제3언어, 제4언어로 구별하지 않는다.)

제1언어와 제2언어의 개념 외에, 다른 개념들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2) 모국어와 외국어

이는 국가에 따른 구별이다. 모국어는 자국의 언어를 말하고, 외국어는 외국의 언어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국어가 제1언어가 되지만 일부 해외이주민들에게 있어 자녀가 태어난 후 처음 접하고 습득하게 되는 언어는 이주국의 언어이지 자국의 언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1언어와 모국어의 개념을 동일시할 수 없고, 같은 원리로 제2언어가 반드시 외국어가 아닐 수도 있다. 해외이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 배우기 시작하는 제2언어가 오히려 그들의 모국어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3) 민족어와 비민족어

이는 언어 집단, 통상적으로 민족에 따른 구분이다. 민족어는 자민족의 언어로 상술한 “모국어”와 통용될 수 있다. 비민족어는 자민족 이외의 언어를 말하며, 외국어일 수도 있고, 또한 중국 다른 민족의 언어일 수도 있다. 몽고족의 예를 보자. 그들에게 몽고어는 민족어이자 모어인 반면, 한어는 다른 민족의 언어인 비민족어이긴 하지만 절대 외국어는 될 수 없다. 만약 한어가 몽고어를 습득한 후에 학습된 것이라면, 학습자의 제2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이해정도 및 사용빈도에서 볼 때, 모국어·민족어·제1언어는 통상적으로 한 사람의 “주요언어”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부차적 언어”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 비민족어, 제2언어는 일반적으로 “부차적 언어”이지만, “주요언어”가 될 수도 있다.

(4) 표준어와 방언

표준어는 모든 민족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규범적 민족 공용어로, 통상적으

로 지역 방언을 기초로 발전한 것이다. 런던방언이 잉글랜드 공용어의 기초가 되었고,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많은 토스카나 방언이 이탈리아 공용어의 기초가 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화는 중국어의 표준어로, 베이징어를 표준음으로 삼고, 북방어를 기초방언으로 삼았으며, 현대백화문을 문법규범으로 삼았다.

방언은 표준어와 구별되는 언어로서,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을 뜻한다. 북방(관화)방언(北方(官話)方言), 오방언(吳方言), 공방언(贛方言), 월방언(粵方言), 객가방언(客家方言), 민방언(閩方言)과 상방언(湘方言)이 중국어의 7대 방언에 속한다.

(5) 민족 공용어

다민족국가에는 각 민족 간 공통의 의사소통수단이 필요하다. 세계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영어가 민족 공용어의 역할을 했고, 러시아의 여러 민족도 러시아어를 민족 공용어로 삼았다. 중국은 경제·문화·사회·역사적 원인 등으로 인해 사용 인구가 가장 많고, 사용 범위가 가장 넓은 한어가 자연스럽게 중국 여러 민족사이의 민족 공용어로 자리 잡았다.

(6) 목표어

목표어는 사람들이 학습하고, 유창하게 구사하기를 바라는 언어이다. 외국어나 비민족어, 심지어 제1언어가 아닌 모국어도 학습하거나 숙달하려는 목표물이 된다면 모두 목표어라고 할 수 있다.

(7) 이중언어

이중언어는 한 사람이 습득하고, 노련하게 구사할 수 있는 두 개의 언어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언어가 반드시 3,4세 이전에 접촉하고 습득한 제1언어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두 언어가 반드시 제1언어인 모국어 수준, 즉 제2언어를 모국어만큼 자연스럽게 구사해야 이중언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이 개념을 실제 사용할 때는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제2언어를 비교적 숙련되게 구사할 수준에 달하면 이중언어라고 한다.

상술한 언어 관련 개념들은 모두 언어교육 및 학습자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령 중국 내몽고족 아동이 몽고어의 언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가정 하에, 그들의 제1언어는 몽고어이며, 민족어와 모어 역시 몽고어이다. 만일 학교에 입학해서 보통화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한어는 그들의 제2언어이자 민족 공용어이고, 또한 그들이 완전히 숙달하길 바라는 목표어이기도 하다. 만약 그들이 한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이중언어를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후에 영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것은 외국어, 또는 또 다른 제2언어이자 그들의 목표어가 된다.

언어측면에서 볼 때, 한어는 한족의 민족어이자 모국어이고, 절대다수의 한족에게 있어 제1언어이다. 한어는 또한 중화민족의 공통 교류수단으로 한어를 학습하는 중국 소수민족들에게는 제2언어이자 민족공용어이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에게 중국어는 그들의 모국어이자 민족어이긴 하지만, 제2언어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중국어는 일종의 외국어이자 목표어이며, 제2언어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화는 중국방언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반드시 숙달해야 할 민족어의 표준어이다.

2.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습득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습득할까?

제1언어의 습득은 대체적으로 두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조기 무의식의 언어습득 시기와 학교 입학 후 의식적인 언어학습의 시기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언어 습득 과정도 시작이 된다. 만 1세 이전은 발성단계로 울음소리에서 웅얼이로 발전하게 된다. 만 1세 무렵 진정한 언어표현 단계가 시작되어 만 5세까지, 이 4,5년의 기간 동안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에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본적으로 그들의 제1언어(일반적으로 모국어)의 대화체계

를 형성한다. 이 과정은 보통 한 단어 말하기(“엄마”)와 같은 한 단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함)에서 두 단어 말하기(예를 들어 “우유 더”, “까까 쥐”, “빠방가” 등 두 단어로 구성된 말)와 전보(電報)식 언어(“나 배고파” 등 문장 중에 허사 없이 실사만 사용하는 언어)등의 단계를 거쳐 성인언어(기능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문법관계도 점차 복잡해짐)를 구사하는 단계에 이른다.

조기 아동 언어의 발전은 그들의 생리적·심리적 성장발육, 특히 인지발달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은 언어학습에 대한 명확한 의식 없이도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를 “습득”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 제1언어 습득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의식적으로 제1언어 학습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주로 일정한 언어 지식과 문화지식을 공부하고, 의사소통 능력, 특히 문어체를 이용한 소통 능력을 양성한다.

제2언어의 경우, 목표어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서라면 장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정규 언어교육과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익히게 된다. 이처럼 정규교육의 환경에서 전문교사의 지도로 엄격한 교육계획안과 교과서에 따라 설명·연습·기억 활동을 통해 계획적·체계적·의식적으로 언어규칙을 이해하고, 점차 목표어를 활용하여 교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3. 제2언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

여기서 말하는 제2언어 교육이란 제1언어를 다 익힌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제2언어에 대한 정규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 계획안과 교수학습지도안 및 교육계획안에 부합하는 교재를 근거로, 전문교사의 지도와 적절한 교수법으로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 및 정기적 테스트 등 평가를 통해 계획적·체계적·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가르치는 제2언어가 중국어라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라고 하고, 가르치는 제2언어가 영어나

한국어라면 각각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라고 부른다. 이 모든 것이 제2언어 교육의 한 갈래이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 목표의 두 가지 언어에 대해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모국어 교육과 제2언어 교육을 말한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는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민족어를 배우게 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2언어로서 한어를 학습시킴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민족어와 중국어 “민한겸통(民漢兼通 :민족어와 한어를 모두 숙달함)”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兼通”은 두 가지 언어 구사능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바로 이중언어 교육과 일반적인 제2언어 교육이 구별되는 점이다.

이중언어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제2언어와 제1언어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한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 언어능력 향상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민족정책과 언어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소수민족지역에서 실행하는 이중언어 교육정책은 민족어를 습득하는 동시에 공용어로서의 제2언어인 한어를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규정에 따라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보호·발전, 국민의 사용 확대, 민족어 문자의 자율성 유지, 인류의 다원적 문화 발전을 유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민족공용어 사용의 확대를 통해 국내 각 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소수민족의 교육 발전과 문화의 질 향상, 경제번영을 실현하는 것 또한 이중언어 교육의 목적이다. 이중언어 교육이란 민족어 수업과 중국어 수업을 개설하여 수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두 가지 언어를 이용하여 다른 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중언어를 교육의 매개어로 삼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제2언어 교육의 특징

1. 제2언어 학습과 제1언어 습득의 비교

제2언어 교육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2언어 학습과 제1언어 습득에 대해 비교를 해보고, 나아가 아이들이 학교 입학 후 진행되는 제1언어 학습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

(1) 제2언어 학습과 제1언어 습득의 공통점

1) 제1언어든 제2언어든 간에 한 언어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주관적인 조건은 학습자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건강한 대뇌와 언어기관을 말한다. 신경생리학에서는 중추신경 계통인 인간의 대뇌는 언어중추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대뇌의 언어기능은 주로 추상적 사고를 맡고 있는 좌반구가 담당하는데, 그 중 전(前)언어구는 주로 언어표현과 관련이 있고, 후(後)언어구는 언어이해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상(上)언어구는 인, 후, 잇몸, 혀 등 발음기관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자는 일종의 도형으로서 그 판독과정에서 구체적 사고를 담당하는 우뇌가 참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뇌가 손상되거나 발음기관, 시청각기관에 결함이 있는 경우 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언어를 숙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객관적 조건이 바로 일정한 언어환경이다. 선천적인 언어습득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환경의 작용을 통해서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늑대소년의 경우 선천적인 언어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환경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할 수 없었다. 성인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데도 반드시 일정한 언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설령 목표어의 자연적 언어 환경에 놓일 수 없을 지라도, 목표어가 입력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어 언어환경이 필요하다. (교실, 교사, 대화상대 등)

2) 두 가지 언어의 습득은 모두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언어는 소

통의 수단이며, 언어 습득의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생존, 주변세계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고, 성인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것 역시 목표어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술을 익혀 목표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3)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성·어휘·문법 등의 요소와 문학적 제약을 받는 언어활용 규칙 등을 파악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아이들은 듣고 말하는 기능을 우선한다)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음성체계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만1세 전후에 어휘 발전 단계에 진입하여, 한 단어 문장, 두 단어 문장, 전보(電報)식 문장에서부터 성인문장까지의 문법체계의 발전 단계를 거친다. 아동은 제1언어를 습득하는 동시에 이 언어의 문화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활용 규칙을 익히게 된다. 성인이 제2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4) 두 가지 언어의 습득은 대체적으로 감지·이해·모방·기억·확립·응용의 단계를 거친다. 아이들이 많은 외부 자극 속에서 감지하게 되는 언어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알아듣는 말을 반복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기억하게 되고, 후에 끊임없이 응용하게 된다. 성인이 제2언어를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몇 단계를 거친다.

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학습의 공통점은 언어학습의 보편적 법칙을 반영한다는 점인데, 이는 언어학습이 다른 분야의 학습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법칙이다.

(2) 제2언어 학습과 제1언어 습득의 차이점

많은 교육 이론가들은 제2언어 교육에 제1언어 습득의 성공적 경험을 적용하길 희망하고 있고, 일부 제2언어 교수법 학파는 아동의 제1언어 습득과정을 완전히 모방하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의 제1언어 습득과 성인의 제2언어 습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제2언어 학습의 복잡성을 간과하여 맹목적으로 아동의 제1언어 습득 과정

을 답습하게 된다면 기대하던 결과를 얻기 힘들다.

제2언어 학습과 제1언어 습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체가 다르다. 제1언어 학습자는 모두 아동인 반면, 제2언어 학습자는 대부분 성인이다. 이 양자의 연령 및 생리적·심리적 특징의 차이로 인해 언어학습 조건, 방법, 결과도 달라진다. 또한 이 주체의 차이가 아래 다른 방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2) 동기가 다르다. 앞에서 두 언어의 습득이 모두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둘의 동기는 결코 같지 않다. 아동의 제1언어 습득은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존과 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언어를 숙달하지 못하면 “우유”, “배고파” 등과 같은 말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또한 아동은 주변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막 배운 언어를 이용해 “이거 뭐야?”, “왜?” 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즉 아동이 제1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적 욕구로써, 자연스러운 동기(비록 자신은 이해 못할지라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구적이며, 타인의 독촉을 받지 않는다.

성인의 제2언어 습득은 의사소통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목표어의 사회에 융화되고 싶은 것 외에,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은 소통을 위한 제1언어 체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2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제2언어 습득의 동기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불안정한 것이다. 때로는 부담을 느껴, 배우는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다른 목표어를 배우기도 한다. 즉 목표어는 반드시 숙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2언어의 학습은 제1언어 습득의 태생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학습자에게 끊임없이 학습 동기를 부여시킬지가 제2언어 학습에 관건이 된다.

3) 환경과 방식이 다르다. 아동의 제1언어는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에서 언어지

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풍부한 언어를 아동에게 주입한다. 아동은 의사소통의 요구에 따라 가까운 것에서 멀리 있는 것까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 까지, 또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까지 모든 언어재료를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주입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생활하고 놀이를 하는 동안 항상 언어를 접하게 되는데, 매일 최소 10시간 이상 , 5년 동안 총 18,000시간 정도 언어의 주입을 받게 된다. 이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는 불가능한 시간이다. 비목표어 환경에서 제2언어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주 1~2교시 수업을 받는다. 최대 5교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을 해도 겨우 1,000시간에 불과하다. 설령 전문적인 강화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1주에 겨우 20시간, 5년에 4,000시간이다. 또한 대부분의 제2언어 수업은 완전히 목표어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설령 목표어 환경에서 학습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언어만 공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언어 습득 시간과 언어 주입량에서 제2언어 학습은 결코 제1언어 습득을 따라갈 수 없다.

아동들이 주변인, 특히 부모에게서 배우는 언어는 단순·명확하고, 반복적이며 느린 속도의 감성이 충만하고 풍부한 “보모(保姆)식”언어로, 아동이 언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신분으로서 주변사람들과 실제로 소통을 하면서, 제1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며 정확한 언어를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키우게 된다. 반면, 성인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제2언어는 발음과 가장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되는데, 학습의 진전은 완전히 교육계획안과 교사의 지도에 달려있다. 실제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배우고 있는 언어를 언제 어디서나 접촉하거나, 실제 의사소통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약간의 연습만으로 대화할 때 바로 목표어를 사용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4) 과정이 다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아동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생리적·심리적 발육과 함께 진행된다. 아동이 단어를 습득하는 것은 실제사물을

접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 사물과 관련된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고양이와 개라는 서로 다른 개념을 확립했다는 것은 이 두 단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다리가 네 개 있는 것을 모두 개라고 한다.'라고 이해한 후, 다시 고양이가 개와는 다르다는 것까지 이해했다는 것이다. 즉 모방, 기억, 응용을 통해 이 단어들을 배워서 사용하게 되고, 관련 개념도 확립하는 것이다. 시간, 장소, 공간에 대한 개념도 관련 단어를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확립된다. 마찬가지로 구나 문장을 습득할 때도, 개념을 확립함과 동시에 수식관계, 술목관계 등의 개념간의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아동이 제1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개념을 확립하고 사고능력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은 사고능력과 함께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인은 제1언어를 습득할 때는 이미 비교적 완벽한 개념체계와 언어체계, 특히 의미체계가 확립돼 있는 상태고, 사고능력도 발달돼 있다. 설령 민족문화의 차이로 일부 새로운 개념이나 자신이 접해보지 못했던 개념을 새로 세우거나,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개념을 확립할 필요 없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학습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봤을 때, 이미 고양이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고, 목표어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새로운 발음·형식·의미를 연결시킬 것인가를 학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언어를 습득할 때, 종종 실제사물을 제2언어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제1언어의 사고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제1언어로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고양이를 봤을 때, 우선 'cat'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고 나서야 목표어의 표현방식을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제2언어를 배우기 전에, 학습자는 이미 제1언어 체계를 확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1언어 체계가 제2언어의 학습에 끼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이'이다. 전이란 학습과정 중에 이미 얻어진 지식, 기능, 방법, 태도 등이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향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할 경우는 긍정적 전이라고 하고,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학습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부정적 전이, 혹은

간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도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학생은 모국어를 배울 때 이미 한자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른 영국, 프랑스,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보다 훨씬 수월하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1언어의 제2언어에 대한 긍정적 전이 작용이다. 하지만 일부 한자는 일본어 의미와 중국어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일본학생들이 한자 학습에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정적 전이이다. 중국 소수민족언어 가운데, 한장어족(漢藏語族)에 속하는 장어(壯語)와 동어(侗語) 등은 중국어 특징과 비슷하여 긍정적 전이 작용이 나타나 민족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에 비해 위구르어, 카자흐어 등은 중국어와는 다른 계통인 알타이어족으로, 다양한 형태변화가 나타나는 등 중국어와 차이점 많다. 이 때문에 학습과정 중에 종종 부정적 전이를 발생시키고, 민족어와 중국어를 통용하는 것이 비교적 힘들다. 그러나 제1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중에는 다른 언어의 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문화적 요소의 습득에도 차이가 있다.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데, 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 우선 언어 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풍속과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의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사상을 표현해야 한다. 제1언어와 문화의 환경 속에서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1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문화와 사회가 요구하는 언어규칙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이렇게 비목표어의 언어 환경 속에서 그 문화를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화의 차이가 언어의 이해, 학습, 응용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2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방식과 행동방식을 형성해야 한다. 너무 익숙해져 있는 모국어의 문화가 습득 중인 목표어의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두 문화의 차이가 큰 외국인 학습자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의 여러 민족들은 중화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두 중화문화권 속에서 함께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따라서 중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데 있

어 민족 간 문화 차이로 생겨나는 어려움이 훨씬 적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각 민족 간에 풍속과 문화의 차이는 정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목표어의 풍속과 문화를 이해할지가 제2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상술한 5가지의 차이점은 주로 제2언어의 학습과 제1언어의 자연스러운 습득 단계에 대한 비교이다. 이밖에 제2언어의 학습과 제1언어인 “국어”학습에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학습 내용에서 나타난다. 제1언어인 국어수업은 학습자가 이미 모국어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모국어를 사용하는 기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주요목적은 모국어의 응용능력, 특히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일정한 어문 기초 지식을 익히고,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학습자의 사상·정서·문학적 교양과 심미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반면 제2언어 학습은 종종 ‘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음 연습과 말하기 공부를 시작으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회화를 공부하게 된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본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한다. 언어학습과 동시에 진행되는 문화교육도 학습자의 목표어 수준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제2언어 교육의 특징

위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제2언어 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귀납해 볼 수 있다.

(1) 목표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언어 사용 능력을 구비한 사람에게 더욱 많은 언어와 문화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언어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어를 사용하여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2) 기능 연습을 중심으로 언어지식을 기능으로 전환시킨다.

언어는 의사소통수단으로써 한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일종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다. 교사의 강의에만 의존하거나 언어의 이론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언어 응용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없다. 기능과 능력은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3) 기초단계를 중점으로 한다.

언어 학습은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초단계는 학습자가 가장 많고, 제2언어 교육의 특징과 법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계이다.

(4) 언어비교를 기초로 한다.

모국어의 전이 작용으로 인해 제2언어 학습은 반드시 목표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의 비교를 통해 교육의 난점과 중점을 밝히고, 학습자의 실수를 분석, 교정해 나가야 한다.

(5) 문화적 요소와 긴밀히 결합한다.

목표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목표어의 문화, 특히 언어학습과 언어 교류와 관련된 문화요소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언어교육은 문화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 학습 그 자체가 목표어로 의사소통하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6) 교육을 집중, 강화한다.

성인이 제2언어 학습은 총력적이고 강화된 학습이다. 실제로 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학습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정이 집중적이고, 수업시간이 많아야 하며,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진도가 빨라야 하고, 한 반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는 다른 과목 교육에는 없거나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바로 제2

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 다른 과목의 교육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기본원칙 등 일련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아래 각장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각각 결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제3절.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특징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은, 그 학습자에 따라 크게 중국 내 소수민족, 외국인, 해외이민자의 자녀로 구별한다. 이 세 부류의 학습자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은 제2언어로서의 기타 언어(영어나 일어 등)와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와 구별되는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차별성은 주로 중국어의 특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00여 년 동안, 특히 최근 50년 간, 중국어 언어학에 대한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고 비교적 심도 있게 중국어의 특징과 법칙을 밝혀냈다. 또한 중국어 언어학의 이론체계를 확립하여,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에 있어 우리는 종종 중국어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전 세계 많은 언어에서 “중국어”란 단어는 “이해불가”, “심오함”, “어려움”과 같은 단어들과 동일시된다. 미국 국방대학은 중국어를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 등의 특수한 문자체계를 가진 언어와 함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에게 있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제4분류 언어”로 규정했다. 그들은 이 제4분류 언어의 듣기와 말하기 학습의 난이도가 제1분류 언어(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2.5배에서 3배에 달한다고 했다.

사실 한 언어가 배우기 쉬운가, 어려운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제1언어의 경우 발육이 정상적인 아동이라면 누구나 만5~7세 이전에 기본적으로 숙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언어의 경우에는 이미 익힌 제1언어의 어족과 유사한가의 문제

가 존재한다. 동일한 어족의 친족 언어는 공통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어족이 다른 언어는 차이점이 많아 생소하게 느껴져 배우기가 힘들다. 성인 중국어 학습자들은 정확하게 중국어의 특징을 인식해 제2언어로서의 학습에 유리한 점과 어려운 점을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정확한 학습방법과 학습전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제2언어로서 중국어 학습의 유리한 요소

(1) 문법방면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의미의 형태변화가 없고, 명사의 격(格)변화가 없으며, 동사의 인칭, 성, 수, 시제, 태에 따른 위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我去学校(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를 你(너), 他(그), 她(그녀), 你们(너희들), 他们(그들), 她们(그녀들), 我们(우리들) 등으로 바꿀 수 있고, “现在(현재)”, “明天(내일)”, “昨天(어제)” 등의 시간사를 첨가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去学校”라는 서술어는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여러 상황에서 중국어는 단어를 일정한 어순에 따라 배열만 하면 되지 다른 부가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식구조가 간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법 차원에서의 중복표현과 문장 속 불필요한 성분 사용을 피했다. 인도·유럽어의 다굴절 변화와 비교할 때, 중국어의 문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2) 음성방면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고, 음절의 경계가 분명하다. 중국어는 기본음절이 400여 개 밖에 없고, 4성의 구별을 첨가한다 해도 1,200여 개 뿐인데, 이것이 바로 학습자들이 익혀야 할 음절의 전부이다. 또한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 운모, 성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조의 변화에는 비교적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고, 발음이 안되는 묵음절이 없기 때문에 익히기 쉽다. 절대다수의 중국어 단어들은 1음절이나 2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북경어언대에서 펴낸 《현대한어 빈도사전》 통계에 따르면 1음절과 2음절 어휘가 총 단어의 85.6%를 차지한다고 한

다), 단어의 2음절화가 대체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영어는 단음절 형식의 음절만도 수 만 종류에 달하고, 영어, 러시아어, 특히 독일어의 단어의 음절수는 모두 중국어의 몇 배에 달한다. 즉 중국어 음성의 구성이 매우 경제적이 라고 할 수 있다.

(3) 어휘방면

중국어 어휘는 음절이 적어서 비교적 기억하기 쉽다. 중국어 어휘의 구성방식은 어근 합성법을 위주로 하고, 대부분 단어로 독립할 수 있는 단음절 어소(語素)를 결합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단어의 뜻과 어소의 뜻이 서로 관련되어 기억하기 쉽다(冰鞋, 手套, 一月 등). 그러나 다른 외국어의 경우는 대부분의 어휘가 이런 특징이 없는 단일어이기 때문에 외우는데 힘이 든다.(skate, glove, January 등)

또한 중국어는 조어방식이 매우 유연하여, 단어가 결합하여 구를 만드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모두 한정, 병렬, 술목, 술보, 주술 등 다섯 가지 구성유형을 사용하고, 조합이 간단하다. 중국어 전체 어휘 중 상용어의 점유율이 영어나 러시아어보다 높다는 점도 단어 기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중국어의 문법, 음성, 어휘가 경제적이면서 간편한 점이 중국어 사용의 속도와 효율을 증가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장을 예로 들었을 때, 영어어휘의 글자 수가 같은 내용의 중국어 문장의 2배정도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시대와 정보화 사회에서 중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우월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경제적이고 간편하다는 특징이 중국어 학습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 기초회화를 익히는 것이 최소한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어렵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2. 제2언어로서 중국어 학습의 난점

(1) 문법방면

중국어 단어가 형태변화가 없다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굴절변화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문법적 수단을 익혀 이미 익숙해진 문법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변화를 암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중국어 문법은 “의미”는 중요하지만,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의미의 결합을 위주로 하며, 암시적 문법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의미 표현이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표어로서 중국어는 문법 규칙이 뚜렷한 다른 언어에 비해 비교적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중국어의 어순과 허사는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수단이다. 단어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문장 성분과의 관계가 복잡하며,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어의 2음절화 경향이 문법 형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 문장 구조에 있어 느슨한 주술구조와 대량의 술보구조, “把”자문과 무표지 피동문 등과 같은 특수한 동사술어문은 모두 중국어 문법의 특징으로, 많은 중국어 학습자에게 난점으로 작용한다.

(2) 음성방면

중국어 음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조에 있다. 중국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이고, 성조는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학습자들의 모국어는 성조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반드시 성조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음절의 고정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힘들고 막중한 임무이다. 모국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인 학습자도 중국어 성조의 분류와 조치(調值)¹⁾가 모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국어 성조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어 음절이 적다는 장점이 많은 동음형식을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중국어는 자음에서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별한다.

(3) 어휘방면

중국어에는 동의어와 유의어가 매우 많고, 양사와 어기조사가 풍부하며, 고정형식의 사자성어를 대량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대중국어에는 여전히 많은 고대

1)음의 고저장단을 뜻하는 말로, 성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각 성조 분류의 실제 독법을 말한다.

중국어의 어휘가 남아있다. 이 같은 특징들은 중국어 어휘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었지만, 학습자들에게는 어휘학습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중국어의 외래어 중, 단순한 음역으로 통용되거나(咖啡(커피), 卢布(루블) 등), 음역과 의역을 교묘하게 접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浪漫(낭만), 可口可乐(코카콜라) 등) 매우 드물다. 절대다수가 중국어 조어법에 따라 개조하여 사용하는데, 음역한 후 분류 명을 결합하거나(汉堡包(햄버거), 芭蕾舞(발레) 등), 부분음역 내지 부분의역(因特网(인터넷), 迷你裙(미니스커트) 등), 의역(电视(텔레비전), 代沟(세대차이) 등)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원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학습자가 모국어와 연결시켜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4) 한자

한자는 중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다수의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학습자에게 있어 한자 같은 표의문자, 즉 한 개의 자형이 하나의 단음절 어소를 나타내는 문자는 완전히 생소한 부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하고 암기하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오랜 중국어 교육 실례에 따르면 한자는 확실히 대다수 중국어 학습자에게 주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2언어 교육의 종사자이자 연구자로서, 우리는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학습의 난제를 더욱 깊이 분석하고, 언어학·심리학·교육학의 이론을 응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학생들이 중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2장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이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우선 학습자의 중국어 수준에 따라 입문·초급·중급·고급의 단계와, 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교의 중국어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유형에 따라서는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사이에는 교육목적·내용·방법 등에 있어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주로 기초단계 특히 초·중급 단계의 중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해 보자.

교육은 인간 고유의 인재양성 활동이다. 광의의 교육은 사람의 지식, 기능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의식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교육이란 사회가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심신에 대해 진행하는 목적을 가진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인 인재 양성 활동을 말한다. 학교교육은 주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업은 주로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관련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고 학습하여 학생의 심신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이다. 수업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결정 된다.

제1절. 제2언어 교육의 역할과 교육의 목적

1. 교육의 역할과 목적

교육의 사회적 역할은 선인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과 기능, 사회에 필요한 사상의식, 도덕규범을 전수하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개인적 역할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고, 개성을 확립하여 개인의 다원적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교육이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기본적 기능인 것인데, 사실 이 두 기능은 별

개의 것이 아니다. 개인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의 발전 또한 개인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생산력의 급속한 향상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회발전과 인재양성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과 지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시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으로 반드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생산자가 비로소 생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교육은 인재 양성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과 현대적 생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이 사회발전과 개인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교육의 목표를 결정했다.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과학적 교육으로 양성된 인재는 덕(德), 지(智), 체(體), 미(美)를 고루 갖춘, 사회발전과 시대적 조류가 필요로 하는 인재이다.

덕육(德育)이란 정치, 사상, 품위에 대한 교육을 말하며, 정치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도덕적 품위와 건전한 인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덕육은 교육의 전체적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육(智育)은 문화, 과학 지식을 전수시키고 지력을 발전시키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을 전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의 최신 성과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해박한 지식을 기초로 정통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지력이란 관찰력·주의력·기억력·사고력·상상력·창조력 등을 말하고, 능력이란 자가학습능력,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능력, 과학적 연구노력, 혁신능력, 조직관리능력, 회화와 문어체의 표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한다. 지육은 교육의 전체적 발전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體育)은 학생의 신체조건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보건위생 및 체육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이다. 체육은 전체적 교육

발전의 물질적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다.

미육(美育)은 학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감상, 표현, 창작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고상한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육은 교육의 전체적 발전에 있어 독특한 구성요소로서 덕육, 지육, 체육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생의 전체적인 심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덕·지·체·미의 조화로운 발전은 학교교육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최대 목적이자, 우리가 오늘날 강조하는 전인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중국정부는 줄곧 전인교육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중국의 교육방침으로 삼고, 전 국민의 도덕적 자질과 문화적 소양 함양을 강조해 왔다. 1995년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에서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노동과 결합하여 덕·지·체를 고루 갖춘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언어교육은 덕·지·체·미의 전체적 교육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2. 언어교육의 중요성

인류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 글로벌화, 교육 국제화가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지식경제사회와 정보화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분업 협력이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국가 간, 국민 간의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제2언어는 소통의 도구로써 현대 사회의 경제, 문화, 정치와 국제교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언어교육, 특히 제2언어 교육은 앞으로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학문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 “외국어교육위원회”(ACTEL) 등 40여 개 기관은 연방정부 교육부와 전미 인문기금회의 경제적 지원 하에,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1996년 《외국어 학습의 표준 : 21세기를 맞이하며》를 완성하여, 신세기 제2언어(외국어) 교육 강령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와 소통은 인류가 경험을 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생업을 하고 친구를 사귀기 위

해서 만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이해받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다원화된 사회와 세계에서 성공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모든”학생들이 반드시 영어와 더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다른 언어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비영어권의 학생들 또한 반드시 제1언어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도 제2언어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대외한어교육을 “국가와 민족의 사업”으로 삼고 있다. 외국어 공부 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어 교육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의 시범실시가 강화되고, 관련 학술연구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즉 외국어 교육, 대외한어 교육, 소수민족의 이중언어 교육이 모두 비약적 발전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의 생존과 발전, 국가의 진보와 번영, 21세기 새로운 인재 양성에 있어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1) 원시시대에도 인류는 언어에 의존하여 노동생산 및 대자연과의 교류 속에서 서로 소통·단결·협력하며 생존하고 발전해 왔다. 오늘날 언어는 지식, 문화의 매개체이자 정보전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정보와 시대에서 그 중요성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언어학습과 언어교육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존과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2) 언어는 교류의 수단으로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문화·정치 각 방면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동참하여, 외국을 이해하고, 외국에 중국을 이해시키기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 각 민족 간 소통과 이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외국어와 중국어의 언어교육을 떠나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3) 언어교육의 인류교육의 기초이다. 제2언어 교육은 인간의 사회성과 지적능

력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원화의식을 함양시킨다. 또한 목표어 사회의 문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시야와 지식을 넓힐 수 있어 21세기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인간의 기본적 자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중요성

중국어는 세계에서 사용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이자, 유엔의 6대 공용어 중 하나이다. 또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로 5000년 문명의 역사를 가진 고대문화의 결정체이자 매개체이다. 중국어는 풍부한 문화기반과 독특한 매력으로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학습자들을 매료시켰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동의 지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말해, 중국어가 아동의 두뇌개발 언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근 20년간,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종합국력도 나날이 신장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계속 상승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국제사무에 있어 점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과의 교류도 밀접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는 중요한 교류수단의 하나로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과 13억 국민들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국제경제, 무역, 문화, 정치적 사무에 있어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어 학습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21세기 중국어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어가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국제 언어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내 56개 민족들을 80여 개의 민족어와 30여 종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 한어는 중국 한족, 회족, 만주족 등 10억여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중국 다민족공동체에서 자연히 민족 공통의 소통수단이 되었다.

중국 여러 민족의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서, 중국어는 계속해서 각 민족 간의 다리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일찍이 진(秦)나라 때부터 소수민족들이(장족 등)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서한((西漢)시기에 이미 중국어가 서역에 퍼져나갔고, 한당(漢當)시기에 여러 소수민족의 젊은이들이 수도로 나와 중국어와 중원의 문화를 공부하였는데, 그 중 과거를 봐서 진사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가 민족 평등, 언어평등의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소수민족지역 내 중국어 교육이 큰 발전을 거두었다. 중국 소수민족지역에 실행되는 이중언어 교육의 경험이 증명하듯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민한겸통(民漢兼通)”을 실현하는 것은 소수민족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오늘날 서부대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 하에 민족공용어로서의 중국어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4.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목적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은 과학적 교육으로, 덕·지·체·미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 즉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어 교육은 중국 교육사업 구성요소 중 하나로 중국 법률이 규정한 교육방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덕·지·체 등을 겸비한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교육목표이다.

물론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이 단독으로 이 교육방침이 규정한 임무를 완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고, 언어 교육이 모든 교육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육방침에서 규정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특수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외국 학습자에 대한 중국어 교육은 국내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완전히 동일시킬 수 없다. 대외한어교육의 대상은 외국 학습자로서, 그들은 중국에서 일정단계의 교육을 받은 후, 주로 자신의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외국 학습자에 대한 교육은 중국의 교육목표 뿐 만 아니라, 외국 학습자 본인 및

그들 국가와 사회가 교육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 유학생 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은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각 국가 간, 각 국민 간 협력과 교류 강화를 기반으로 교육의 객관적 법칙을 준수한다면, 중국의 교육 특성과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 또한 외국 학습자 및 그 국가와 사회의 교육적 요구도 함께 고려한다면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인교육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전인교육은 마땅히 지, 덕, 체, 미의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외국 학습자의 실제상황에 맞게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실천하되, 원칙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제2절.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목표

교육의 목표는 주로 학습의 경로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전인교육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은 주로 문화, 과학, 기술의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고 학습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목표를 실현시키는 구체적 교수목표가 존재한다.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귀납된다. 첫째, 학습자가 중국어의 기초지식과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본 기능을 숙달하여 중국어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로 하여금 중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어 자가 학습능력을 갖춘다. 셋째, 학습자가 중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중국의 기본정세와 문화지식을 익히며, 도덕사상, 심미능력, 문화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물론 학습단계와 학습기간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 이 세 가지 방면에 기초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1. 중국어 기초지식과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본 기능을 숙달 하여 중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교육목표로서 언어교육의 근본적 임무이다.

중국어 기초지식이란 중국어의 음성·문법·어휘·한자·문화 방면의 기초규칙을 말하고, 중국어의 기본적 기능이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 제2언어를 숙달하기 위한 기초이자 전제조건으로 성실하게 언어지식과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익히지 않는다면, 이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언어는 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정보, 사상, 정서를 교류하고, 언어를 사용해 일을 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다. 만약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언어지식과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또한 의사소통 없이는 제2언어도 숙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2언어 학습에는 일정한 언어지식의 습득과 그에 따른 기능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럼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가?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사회적 교류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다음 네 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1) 문법능력

언어능력이라고도 한다. 언어규칙에 대한 이해능력으로서, 음성, 어휘, 문장구조(중국어의 경우 한자도 포함된다) 등의 규칙을 포함하며,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갖추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변별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언어능력

언어는 일정한 사회 환경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정확한 음성, 어휘, 문법을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 그리고 대화상대에 따라 적당한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언어능력은 바로 언어사용 규칙을 이해하여 실제 사회 환경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대화상대(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배경지식), 장소, 교류목적과 화제, 회화 규칙 등과 관련이 있다.

(3) 텍스트능력

텍스트는 의사소통을 할 때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의미가 완벽한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고, 구조의 연결, 의미의 연결, 논리의 배열로 주제를 표현하는 연속된 문장으로 구성된 총체적 언어이다. 의사소통에 있어, 반드시 텍스트를 이용하여 의미가 연결되게 표현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4) 전략능력

소통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예를 들어 소통의 중단을 피하거나, 소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임기응변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의사소통능력이란 언어능력과 언어사용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언어 규칙은 물론 언어사용 규칙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이는 언어지식 외에도, 사회, 문화, 심리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을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지식과 기능의 체계이다. 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의 본질적 특징과 점점 밀접해지는 세계 여러 국가 간 교류로 언어 인재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의사소통능력 양성이 이미 제2언어 교육의 목표가 된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제2언어를 사용하여 소통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학습 목표이자,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점이다.

2. 중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 지적능력을 향상 시키고, 중국어 자가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언어학습은 하나의 인지과정이자, 지적능력 활동의 과정이다. 지적능력은 인간의 심리적 기능의 일종으로 성공적으로 객관적 사물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심리적 요소가 종합된 것이다. 또한 관찰력, 주의력, 기억력, 사고력, 상상력, 창조력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 능력이기도 하다. 언어학습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본적 요소들이 역할을 발휘해야만 인지과정을 가속화하여 양호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감성적 요소는 지적활동이 아닌 심리적요소로서, 주로 동기, 태도, 흥미, 감정, 의지, 성격 등을 포함하고, 언어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학습자가 끊임없이 동기를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만

는다. 또한 언어교육은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성을 키우는 임무를 가지고, 목표어를 숙달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의식적으로 적절한 훈련과 지도 방법을 택하게 된다. 여기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지적능력과 감성적 요소는 더욱 발전될 수 있다.

중국어 학습은 장기적인 과정이다. 교사가 지도하는 학교수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언어지식을 습득하고 언어사용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습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언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대 이상의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자가 학습능력 역시 지적능력의 요소와 감성적 요소로까지 이어지는데, 학습자가 학습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과정 중에 학생들의 언어학습에 도움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어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3. 중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중국의 기본정세와 문화지식을 익혀, 도덕사상, 심미능력, 문화적 소양을 함양한다.

중국어 학습에는 반드시 일정한 문화지식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중국어에 대한 인문지식이 풍부할수록 더욱 심층적으로 중국어를 숙달할 수 있고, 고급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문화지식에 대한 학습은 중국어 수준향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도덕사상과 문화적 자질 향상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심미능력을 향상시킨다. 언어는 의사표현의 도구로서, 학습자가 언어의 구조형식을 학습하고 언어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재나 혹은 교재를 사용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모두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긍정적이며 건전하고 적극적인 심미적 작용으로 승화시켜 덕육교육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소수민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은 마땅히 중국 현 단계의 덕육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또한 조국 사랑, 개혁개방에 대한 열정,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헌신, 조국통일 유지와 민족단결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정확한 세계관·인생관·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언어수업이 구현하는 덕육교육은 마땅히 언어교육 규칙에 부합

되어야 하며, 언어교육 안에 잠재되어 있는, 즉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덕육교육은 언어교육을 떠나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심지어 언어수업을 정치, 도덕수업처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내용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교육 과정을 조직하여 전문적인 교과과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교과과정 설계의 주요임무이다. 교과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전문적 교수 학습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제정된 문건을 교육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위해 제정한 지도적 문건을 교육요강이라고 한다.

1. 교육내용

교육목표가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제2언어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교육목표가 제2언어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내용은 아래 4가지 방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1) 언어요소(중국어의 음성, 어휘, 문법, 한자)
- (2) 언어기능(중국어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 (3) 의사소통기능(중국어의 언어사용 규칙, 텍스트규칙, 소통전략)
- (4) 관련 문화지식(중국어의 문화요소, 중국의 기본정세와 문화배경지식)

언어의 요소는 통상적으로 음성·어휘·문법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중국어의 특징을 근거로 하고, 이에 서면언어의 문자, 즉 한자를 더해 언어의 4요소를 구성한다.

학습자는 이 언어요소에 대한 지식을 익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의 기능이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능을 말한다. 언어의 기능은 언어요소를 기초로 하는데, 이는 언어규칙의 제약을 받으며 언어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의사소통기능은 언어를 사용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는 언어 기능을 기초로 한다. 의사소통기능은 언어의 정확성뿐 만 아니라 언어의 적합성도 함께 요구되는데, 즉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그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기능을 숙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 규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즉 때와 장소, 교류대상, 교류목적에 따라 언어의 내용, 형식, 응대방식에 있어 선택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일정한 텍스트규칙을 익혀야 한다. 언어의 적합성은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서 나타난다.

관련 문화지식이란 현재 언어체계의 문화요소, 기본적 정세와 문화 배경지식을 포함한다. (언어 관련 문화지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언어요소, 언어기능, 의사소통기능과 문화지식이 의사소통능력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 몇 가지 교육내용은 비교적 전면적으로 언어의 구조와 형식, 기능과 의미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화를 개괄하고 있다. 또한 제2언어 교육내용의 지식과 기능의 두 가지 방면을 개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2언어 교육에서의 언어문화요소

언어문화요소란 언어교육 중의 문화교육이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로 언어체계 각 단계의 문화적 내용과 언어사용의 사회적 규약을 가리킨다. 언어문화요소에는 주로 어휘계통, 문법계통, 어용계통에 내포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언어의 이해와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어, 간혹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화요소가 결핍된 언어교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요소 역시 음성·어휘·문법·한자 등의 요소와 함께 언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문화요소는 언어구조 문화, 언어의미 문화, 언어사용 문화로 나뉜다.

(1) 언어구조의 문화

언어구조 문화란 단어, 구, 문장, 글로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족의 심리상태와 사유방식을 반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의미의 조합을 중요시하고 형식은 그리 중요시 되지 않다는 것이다. 엄격한 형태변화로 문법관계와 의미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언어규칙을 따르는 것 외에는 전·후 문장과 의미의 조합이 타당하기만 하면, 단어, 구, 문장, 단락을 구성할 수 있다. 중국어는 이처럼 형식적 표지를 중시하지 않고, 언어구조 내부의 의미관계인 “의미의 결합”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의 의합성(意合性)은 반드시 언어구조의 유연성과 간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단어조합에 있어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 단어를 파생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매우 유연한 어근 합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개의 어근이 의미상 결합이 가능하면, 일정한 구문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단어를 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动(움직이다)”과 “静(정지하다)”란 두 어소는 본래 단일어인데 병렬방식으로 함께 조합하면 또 다른 합성어 “动静(동정, 인기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조어법에 근거하여 “动”에 다른 어소를 더해 “动物(동물)”, “动手(착수하다)”, “动人(감동적이다)”, “动心(마음이 움직이다)”, “动身(출발하다)”, “动摇(동요하다)”, “改动(변동하다)”, “流动(유동하다)” 등의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합성어들의 의미는 결합된 각 어소의 의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중국어의 품사는 그 기능이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겸류(兼類)”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중국어 문장은 주로 단어의 뜻과 어순에 의해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어 위치도 매우 유연하다. 예를 들어 “苹果多少钱一斤(사과가 한 근에 얼마예요?)”, “苹果一斤多少钱”, “一斤苹果多少钱”, “多少钱一斤苹果”는 모두 어순은 다르지만 기본적 의미는 같다. 또한 “三个人吃一斤饺子(세 명이 만두 한 근을 먹다)”와 “一斤饺子吃三个人”, “衣服淋湿了(옷이 젖었다)”와 “淋湿衣服了”는 의미가 확실하여, 주체와 대상의 위치가 바뀐다 해도 해석이 달라지거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어의 경우 단문이 결합하여 복문을 만드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접속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明天下雨, 出不去了(내일 비가

와서, 외출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 두 단문 사이에는 접속사와 같은 형식적 표시가 전혀 없다. 그러나 청자는 충분히 이 문장의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어는 의합법(意合法)으로 구조가 매우 탄력적이라는 것은 특히 유수구(流水句)²⁾에서 잘 나타난다. 즉 몇 가지 일이 시간, 앞뒤 순서, 혹은 사리의 추이에 따라 배열되는데, 의미가 이어지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정한 인과, 전진, 승접, 가설, 조건 등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형식상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다. 소문장의 주어는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중도에 달라져도 무관하다. 또한 초점이 꼭 하나일 필요가 없고, 어기가 끊어질 수도 이어질 수도 있으며, 삽표로서 의미가 완성되기도 한다.

아래 진술문의 예를 보자.

“小姐把我们引进预先订好的单间，宽衣，就坐，热手巾，菊普茶，然后互道契阔仰慕以及久闻大名之类的套话，接着名片递过来，才知道那位暴发户，是‘东方投资公司’的老板，钱多得如流水”¹⁾

(아가씨가 우리를 미리 예약해 두었던 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받아주고, 자리에 앉혀, 더운 물수건을 주고, 국화차를 따라 주었다. 뵙고 싶었다느니, 명성은 익히 들었다는 등의 상투적인 인사말을 건네고 난 후, 명함을 건네받고 나서야 이 줄부가 동방투자사의 사장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인걸 알았다.)

고전시가에서는 의미의 결합이 더욱 극에 달하여, “枯藤老树昏鸦，小桥流水人家，古道西风瘦马(시들어 버린 넝쿨, 고목, 황혼의 까마귀, 작은 다리, 흐르는 물, 인가, 오래된 길, 서풍, 뼈만 앙상한 말)”은 완전히 명사의 배열로만 이루어지고, 어떠한 문법관계의 형식적 표시도 없다. 완전히 의미의 결합에 의존하여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대시인들이 종종 이를 이용하여 중국 시가 특유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풍격과 아름다움의 정취를 표현했다. 중국어 구조의 유연성을 나타낸 위의 예문은 중국어의 간편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의미의 결합을 강조하는 문장에서 접속사들이 대량 생략되었고, 여러 가지 성분, 특히 주어까지 종종 숨어있거나, 수식어와 중심어, 심지어 연동사까지도 생략이 가능하다.

2) 행위,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나 시간에 따라 배열하는 문장으로, 중국학자들이 내용이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유수구(流水句)라 이름 지었다.

이밖에, 중국어 문장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시간 혹은 이치에 따라 배열하는데, 사물을 설명할 때 종종 큰 것에서 작은 것,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적인 것, 원인에서 결과, 기존지식에서 미지의 지식 순으로 하는데, 이는 중국인이 직감적 체험과 사유방식을 중요시 하는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질서정연하게 단어가 배열되고, 의미가 대칭되고, 음절이 조화로운 중국어 특유의 대구(對句)문장은 중국인이 대칭과 쌍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 심리를 보여 준다.

중국어의 구조적 특징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결코 중국어와 다른 언어의 구조에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어의 의미 결합과 유연성을 강조한 것도 결코 중국어 구조가 규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국어 문장 구조의 과학성(규칙계통)과 그와 동시에 존재하는 심오한 인문성의 일면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서양의 문법개념과 이론체계로는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중국어 구조의 규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어 구조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중국의 인문적 전통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어의 특징과 규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언어이론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있어 구조문화의 교육내용은 일반적으로 문법교육과 긴밀히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다.

(2) 언어의 의미의 문화

언어의 의미 문화란 언어의 의미계통, 특히 어휘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함축적 의미를 말하며, 민족의 심리상태와 사유방식을 반영한다. 이것은 언어의 문화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방식으로, 언어교육의 문화요소 교육의 중점이 되고, 언어의 의미 문화 교육은 종종 어휘교육과 함께 이루어진다.

민족문화 특유의 사물과 개념은 어휘에서 나타나는데, 다른 언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면 제2언어학습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후밍양 교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특정한 자연 지리적 환경의 제약을 받는 어휘(“梅雨(장마)”, “梯田(계단식 밭)”, “戈壁滩(사막)”, “熊猫(팬더)” 등), 특정한 물질적 생활조건에 제약을 받는 어휘(“馒头(만도우)”, “旗

袍(치파오)”, “四合院(사합원)”, “炕(온돌)” 등), 특정한 사회, 경제 제도의 제약을 받는 어휘(“科举(과거)”, “支书(지부 서기)”, “下放(하방, 하향)”, “农转非(비농가 전환)” 등), 특정한 정신적 문화생활의 제약을 받는 어휘 (“虚岁(집에서 세는 나이)”, “黄道吉日(길일)”, “红娘(중매쟁이)”, “阿Q(아큐)” 등²⁾)가 바로 그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어에는 많은 속어와 전고(典故)가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있는 사물이나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 중에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장애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단어의 내포된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农民(농민)”이란 단어는 제도가 다른 나라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胖(똥똥하다)”의 의미도 문화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있다. 또한 단어의 의미에 있어 그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知识分子(지식인)”나 “叔叔(삼촌)”은 영어의 대응되는 단어와 나타내는 범위가 다르다. 또한 단어의 포괄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狗(개)”, “龙(용)”, “宣传(선전)” 등의 단어는 좋고 나쁨의 평가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파생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송죽매는 중국어에서는 사람의 고결한 품성을 상징하나, 영어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3) 언어사용 문화

언어사용 문화란 언어가 의사소통에 사용될 때의 언어사용의 규칙과 문화의 규약으로 민족 문화 특히 풍속문화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언어사용 문화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문화요소 교육에서 중점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과 서양인들의 언어사용 문화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호칭

중국인은 인간관계에서 나이, 지위, 친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손윗사람(선생님 포함)이나 상급자에게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중국인은 호칭에 “老”자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 “老大爷”, “老大娘”, “老先生”, 심지어 “○(姓)老”는 모두 존경의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맥락으로 호칭에서 다른 사람의 서열을 높여주기

를 좋아해서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자기와 동년배의 사람을 “叔叔”, “伯伯”라고 부르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小弟弟”, “小妹妹”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친근함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족호칭을 사용하기도 해서, “解放军叔叔(해방군 삼촌)”, “护士阿姨(간호사 이모)”라는 호칭이 생겨나기도 했다. “관본위(官本位)”사상의 잔류로서 중국어에서는 “성+직무/직업”의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데, “○部长(○부장)”, “○科长(○과장)”, “○会计(○경리)”등을 사용하고, 일부러 직무 앞의 “부(副)”를 생략해서 부르기도 한다.

2) 안부와 작별인사

“你好(안녕하세요)”는 특별히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 비교적 정식으로 하는 인사말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당시 상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미 알면서도 일부러 혹은 별 궁금증이 없어도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在看书啊(책 보니?)”, “洗衣服哪?(빨래 해?)” “进城去?(외출하니?)” 등이다. 때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는데 “看什么书呢?(무슨 책 보니?)”, “去哪儿?(어디 가?)”라고 묻는 것은 꼬치꼬치 캐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도 구체적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비교적 친밀한 사이인 경우는 종종 “身体怎么样?(건강 어때?)”, “衣服怎么穿得这么少?(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었니?)”라고 묻기도 하는데, 이는 관심의 표현이지 상대방의 사적인 생활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 헤어질 때는 자주 사용하는 “再见(또 보자)”외에도, “走好(잘 가)”, “慢走(조심히 가)”, “路上小心(길 조심해)”등의 관심을 표하는 말을 한다. 주인이 손님을 배웅할 때는 문 밖에 나가서 손님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데, 이때 손님은 “请回吧(돌아가세요)”, “请留步(그냥 계세요)”, “别出来了(나오지 마세요)”등의 인사말로 주인이 문 밖까지 배웅하는 것을 말리기도 한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을 배웅할 때는 주로 “一路顺风(편한 여행 되세요)”, “多多保重(건강 조심하세요)”등의 작별 인사를 한다.

3) 감사와 사과

중국인이 “谢谢(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인사를 하는 비율은 서양인에 비해 훨씬 적다. “谢谢”는 중국어에서 예의와 겸손을 표하는 용어로서 관계가 친밀할수록

덜 사용하게 되고, 가족들 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내가 남편에게 차를 따라줄 때 남편이 “谢谢”라고 한다면, 아내는 오히려 영문을 몰라 하며 “서먹함”을 느끼지 정겨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중국인은 사과의 인사표현도 서양인에 비해 덜 사용한다. 과거에는 재채기, 트림, 기침 등은 어쩔 수 없는 생리적 반응이라고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습관이 없었다. 이는 또한 아마도 중국어에는 “excuse me”에 대응하는 가벼운 사과 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면 최소한 “对不起”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 이었는지도 모른다.

4) 높임말과 낮춤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국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교류규칙이다. 손윗사람이나 잘 모르는 동년배에게, 심지어는 손아랫사람에게도 일반적으로 경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호칭을 “您”으로 하고 “贵”를 사용하고(贵姓, 贵校, 贵国), “请教(가르침을 청하다)”, “高见(고견)”, “光临(광림)”, “拜托(삼가 부탁드립니다)”, “大作(대작)”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통 낮춤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敝”(敝人, 敝效, 敝公司)나, “浅见(천견)”, “拙作(졸작)”, “寒舍(누추한집)”등의 말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보통 상대방을 높게 평가하고 존경을 표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고의로 낮춰 겸손하고 교양이 있음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분명 한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我懂得不多(이해가 부족하다), 是外行(문외한이다), 是来学习取经的(경험을 배우러 왔다)” 등 이라고 말한다. 분명 초대를 받고 학술보고회에 참가했으면서도, 개막사에서 “事前没有准备(사전에 준비를 못했다), 谈一点粗浅的看法, 抛砖引玉 (다른분들의 고견을 들어 보겠다)”라는 상투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以上是个人粗浅的看法(이상 개인적인 미숙한 의견이었다), 拉拉杂杂拉浪费了大家的时间(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았다), 不对的地方欢迎大家批评指正(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길 바란다)” 등의 말을 한다. 이는 중국문화에는 매우 부합되는 태도이지만, 서양문화에서는 “진심이 아니다”라든가 혹은 정말 지식이 없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5) 격려와 겸손

중국문화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 중국인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도 매우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성과나 공로를 단체나 지도자에게 돌린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哪里, 哪里(천만에요)”라고 말하며 당치않음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어 정말 잘 하시네요”라는 칭찬에 “천만에요, 아직 유창하지 못해요”라고 답하고, “스웨터가 너무 예쁘네요.”라는 칭찬에는 “예쁘긴요, 많이 낡았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감사를 표하는 경우 비교적 공식적인 장소라면 종종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겸손을 표하는 말이지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이나 거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6) 초대와 선사

중국인은 다른 사람의 식사초대를 받았을 때,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닌 이상은 초대에 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한번 사양하면서 “不要麻烦了(번거롭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의와 초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다. 초대받아 갈 때는 행동거지를 품위 있게 하고, 예의를 지켜 주인이 번거롭지 않게 해야 한다. “뭐 마실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선 사양하면서 “不用了(필요 없어요)”라고 말을 하거나 “客随主便(손님은 주인 뜻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随便(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서양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관습이다. 또한 중국인은 손님을 접대할 때는 매우 친절하고 적극적이며, 계속해서 음식이나 술을 권하거나, 손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음식이나 술을 더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의를 표현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요리가 매우 풍성함에도 주인은 “便饭(간단한 식사)”, “没有什么菜(별 요리 없다)”, “没有什么准备(별로 준비 못했다)”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不会做菜(요리 솜씨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내는 그 말에 화내거나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예의와 겸손의 표현이지 가식적인 표현이 아니다. 또한 선물을 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선물의 가치를 낮추면서 “小

意思(작은 성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보통 선물을 면전에서 개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양인처럼 바로 선물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맘에 드는 지를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太破费了(괜히 돈 쓰게 만들었네요)”라고 말하면서 과분함과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선물의 반을 되돌려 주며 선물한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서양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관습이다.

7) 프라이버시와 금기

중국인들은 절친한 사이일수록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 말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긴다. 연령, 수입, 지출, 결혼생활, 자녀에 대한 얘기는 서양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지만, 중국에서는 친한 친구사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길 원하고, 또 일단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면,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도 한다.

중국인의 침실은 결코 손님 금지 지역이 아니며 침대 역시 손님이 앉아도 무관하고, 개인의 사무 책상위의 서류나 잡지 등을 친한 친구가 걸어 보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객관적인 물질,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보통 중국인들의 집은 넓지 않아서, 손님을 접대할 거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오랫동안 중국은 평균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개인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아 그것이 비밀일 이유가 없었고, 나이의 경우도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老”라는 글자에 별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나이 먹고도, 나이 값 못 한다”라는 말로 겸손을 표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나이를 더 올려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인에게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장자가 젊은 여성에게 나이나 결혼여부에 대해 묻는 것은 일종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무관하지만, 중년과 청년 이성간에는 서로 나이를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특히 젊은 남자가 젊은 여성에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중국문화에서 금기하는 것은 비교적 많은 편인데 결혼, 연애 등은 “사적인 문제”라 여겨지고, 보통 면전에서 젊은 여성의 외모, 몸매 등을 칭찬하지 않는다. 또래의 이성 간에는 더욱 엄격한데, 만약 그럴 경우 경박하게 보여 질 수도 있다.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섹시하다”라

는 단어가 중국어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 여성을 칭찬하는 말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성간에는 예의상 하는 악수 외에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내나 남편의 외모를 칭찬하지 않는다. 반면 동성 간의 금기사항은 서양에 비해 훨씬 적은 편으로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동성친구끼리 시시덕대도 동성애로 오해를 받지 않는다.

상술한 언어 사용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동서양의 문화차이에 대한 예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학습자들이 다문화교류 중에 우선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장애요소를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언어사용 규칙은 집단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경, 친절, 겸손 등의 전통적 중국문화를 극명히 구현한다.

제3장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원칙

1960년대 이래로 제2언어 교수법이 활발히 발전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추세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추세들은 오늘날 제2언어 교수법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제2언어 교육의 여러 학파의 변천 및 제2언어 교육의 발전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천문제를 연구하기 위함인데, 그 중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원칙이다.

제2언어 교육의 원칙이란 일정한 교육목표 및 교수목표에서 출발하여, 제2언어 교육 실천의 기초위에서 언어규칙, 언어학습규칙, 언어교육규칙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제정한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원칙이다. 과학적 교육원칙은 언어교육의 객관적 규칙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반영하여, 교육활동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았고, 교육활동 중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되기도 한다. 교육원칙이 교수법 체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제1절. 제2언어 교육의 발전 개황

제2언어 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100여 년의 발전 역사 속에서, 성숙기와 확정시기를 거쳐, 독자적인 발전의 시기로 진입했다.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를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개혁운동으로 인해 직접교수법이 생겨나, 장기적으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도전을 했다는 것인데, 이때부터 언어교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제2발전시기로 제2언어 교육이라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를 확립한 시기이다. 언어교육 연구를 주요임무로 하는 응용언어학이 40년대 초 미국에서 생겨나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학술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전문 간행물들이 연이어 출

판되었으며, 대형 프로젝트들이 전개되면서 제2언어 교육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언어학, 심리학, 교육학 등 근접학문이 거둔 새로운 성과에 힘입어 짧은 역사를 가진 이 분야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각종 교수법이 우후죽순격으로 출현했는데, 40~50년대의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 60년대의 인지주의적 교수법과 각종 인본주의 교육법, 70년대의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까지 백가쟁명의 국면이 나타났다.

70년대 이후, 제2언어 교육이론 연구 방향이 습득과정, 규칙습득, 학습자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촘스키의 보편문법이론의 영향과 심리학, 교육학 등 인본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제2언어 교육이 마침내 그 고유의 특징에 부합하는 특수한 발전의 경로를 찾게 되어, 더 이상 언어학에 의지하지 않고, 언어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많은 이론적 기초위에서 분야를 초월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추세는 제2언어 교육이 발전의 제3시기, 즉 고유의 특징을 가진 독립적 발전시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역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제2언어교육의 발전 개황, 교수법 유포와 그 발전 추세는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국한되는데, 제2언어로서의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등 서유럽 언어의 교육(제2언어로서 러시아의 교육까지 포함)에 반영된다.

중국은 세계 고대문명국가이자 언어대국으로서, 언어교육이론 분야에서 이미 천 여 년 전에 심오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여러 역사문헌에 기재했으며, 매우 풍부한 언어교육의 실전경험을 축적했다. 중국의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의 발전 역사는 50년 정도 되었고, 중국어의 특징에서 출발하여 제2언어로서의 교육법칙을 연구하는 동시에 서양 여러 교수법들의 장점을 흡수하여, 점차 중국만의 교수법 체계를 완성시켰다.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중국의 중국어교육 이론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해외의 제2언어 교육이론의 성과를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제2언어 교수법 유포의 역사와 변천 및 현재 발전추세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를 종합하고, 나아가 새로운 제2언어 교수법 체계를 연

구하는데 거울로 삼기 위함이다.

제2절. 제2언어 교수법의 발전 추세

1960년대 이래, 제2언어 교수법의 발전에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21세기 교육실천과 과학적 이론연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각기 다른 교수법 유파들은 자신의 특색을 유지하는 동시에 종합화의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교수법 연구의 중점이 지도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전환되었다.

교육이론과 습득이론의 심화됨에 따라 제2언어 교육법칙과 학습규율에 대한 이해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수법 유파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냈고, 또한 단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람들은 점차 완벽한 교수법은 없으며, 자신의 주요원칙과 주요특색을 견지하는 동시에 편파성을 극복하고, 대립되는 교수법의 장점을 흡수하고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 유파들이 파벌이 달라서 생기는 편견을 점차 버리기 시작했고, 연구의 방향을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전환하여, 여러 갈등 관계를 해결했다. 6~70년대 출현했던 교수법들을 살펴보면, 극단적인 주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되도록 각종 분야의 교육사상과 교육원칙을 종합하여, 여러 교수법의 장점을 구현해 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합화는 이미 교수법 유파 발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추세가 되었다. 인지주의적 접근법을 예로 들면,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계승하여 이해와 언어(문법)지식의 습득을 중시하는 동시에 듣기와 말하기의 능력 향상을 강조하면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구형 연습을 포함한 끊임없는 연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본주의 교수법에서 주장하는 학습자의 정서와 동기를 중시하고, 학습의 자발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특징을 흡수하였다. 또한 자각실천법은 생성 초기부터 서로 대립하고 있던 직접교수법과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였으

며, 발전과정 중에는 청각구두식 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의 특징까지도 받아들여 종합적 교수법으로 발전했다.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더 많은 학과의 영향을 받았는데, 소통능력을 강조하는 전제하에서 청각구두식 교수법과 상황적 교수법 및 인본주의적 교수법의 특징까지 받아들였다. 인지주의적 접근법, 자각 실천법,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 이 특색이 분명한 세 가지 교육법은 기본적인 교육사상이 매우 유사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교육의 목적, 대상, 단계,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만능 교육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T. Light는 “단계별 교육법”을 제시하며, 학습단계의 특징에 따라 적당한 교육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급단계에서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을 사용하고 중급단계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 고급단계에서는 인지주의적 교수법이나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단계에서 몇 가지 교육법을 교차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2. 규칙습득에 대한 연구토론의 기초위에, 교육법칙을 연구하는 것은 교수법 발전에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

1970년대 이래 제2언어 습득은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교수법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學”에 대한 연구는 “教”연구의 기초로서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학습규칙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인식이 대두되었다. 최근 30년간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 성과를 거두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한 단계 더 개척했으며, 심지어 제2언어 습득이론의 기초위에서 확립된 교수법인 자연 교수법이 출현하기도 했다. 또한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학습심리과정과 심리규칙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제2언어 교수법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교수법의 새로운 분야도 개척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분야가 종합적인 성격과 특징으로 인식되고, 수많은 근접 학문을 떠나서는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심

리학과 교육학은 이론과 방법에 있어 토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학문분야의 발전방향과 행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어떻게 이 분야의 특색을 구현하고, 독특한 발전 행로로 나아갈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3. 목표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2언어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제2언어 교육의 목적은 단지 학습자가 목표어의 언어지식과 일정 수준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목표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이는 대다수의 제2언어 교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제2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가 실현하려는 제2언어 인재 양성의 요구조건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일정 수준의 언어지식과 소통기술을 필요로 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생겨난 20여 년 동안 이 교육목표의 실현에 있어 많은 성공 실적을 거둔 반면, 여러 난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는 교육목표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언어형식과 언어기능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한 의사소통 중심의 학교 교육을 어떻게 완비해 나갈지의 문제이다.

4.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에 있어 감성적 요소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원칙이 되었다.

1960년대 인문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학생중심”의 원칙이 제시 되었다. 이어 집단 언어학습법, 암시 교수법 등 인본주의적 교수법의 대량 출현으로 이 원칙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 중 일부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사가 교실수업을 주도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조종에 몸을 맡기는 전통적 구조는 이미 부정되고 있고, 어떻게 학습자의 자발성, 적극성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 특히 어떻게 감성적 요소를 중시하고 (20여 년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조화로운 사제관계와 교우관계를 형성하는가가 향후 교육법 연구의 중점이 될 것이다.

5. 교육수단의 현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화 사회,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는 제2언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또한 제2언어 교수법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선진화된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제2언어를 교육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형식, 교육방법, 교사와 학생의 역할, 교재의 편집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수법 체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심지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제2언어 교수법 연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상술한 제2언어 교수법 발전의 새로운 추세는 필연적으로 이미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수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교수법이나 외국의 여러 제2언어 교수법들의 특징과 향후 발전추세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옛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외국의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발전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수법 체계를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어 교수법의 특징을 기초로 다른 교수법의 장점을 널리 받아들이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더 넓은 시야로 현재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개척해야 한다.

50여 년 동안 중국의 중국어 교육계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근거로 해왔다. 실제 중국어 교육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제2언어 교수법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극단적이고 편협한 방법을 배제하고,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는 종합화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날 이 분야의 여러 교수와 학자들은 여전히 “종합적 언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종합적 언어 교수법은 언어기능에 대한 교육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 하고, 언어구조의 규칙에 대한 교육과 문법지식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모방훈련을 통한 습관 형성과 교실에서의 자발적 학습을 중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정규수업과 방과 후 시간의 자연적 습득을 중시하고 그 보조기능을 배제하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학습자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충

분히 발휘시키고 교사의 지도 역할을 중시한다. 또한 교재는 모범적, 순차적이며, 학습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고, “실제적인”교재의 비중을 점점 높여가야 한다. 물론 이 모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교육원칙이 해결해야하는 주요과제이다.

제3절. 교육원칙의 지도사상 확립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원칙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교육원칙은 일정한 교육이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교육이론은 또한 언어학이론, 심리학이론, 언어습이론, 교육학이론, 다문화 교류이론, 철학이론 등 여러 이론에 기초하여, 중국어 교육 고유의 규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형성한 이론체계이다. 그러므로 교육원칙을 확정함에 있어 반드시 교육학이론 및 위의 이론적 기초에서 그 근거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육원칙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교육경험을 종합한 것으로써,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육실천을 통해 교육원칙을 발견하고 실현하고 있으며, 완비시키고 있다.

교육원칙을 연구할 때 아래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근접학문에서 이론적 영양분을 흡수한다.

언어학이론은 가장 직접적인 이론 근거로써, 언어의 특징에 대한 견해가 직접적으로 교육원칙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이 언어교육의 근본적 임무를 결정했고, 언어가 일종의 기호체계라는 특징이 언어교육의 제반요소를 결정했으며, 생성계통으로서의 언어의 특징이 언어교육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기능훈련의 관계를 결정했다. 또한 텍스트언어학, 전산언어학, 공정언어학 등 새롭게 발전한 언어학의 갈래가 교육원칙을 확정하는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했다.

심리학 이론과 언어습이론에서 제시한 제2언어 학습에서의 학습자의 심리 활동 규칙과 개체요소의 작용 및 학습과정 등은 교학관계의 원칙 및 일련의 학습효과 상승 원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교육

학에서 제시한 보편적 교육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과학성과 사상성이 통일된 원칙, 이론관계 실제의 원칙, 지식전수와 지능개발이 결합된 원칙, 교사의 주도적 역할과 학생의 자발성 및 자각성이 결합된 원칙, 통일된 교육요구와 인재시교(因材施教: 재능에 입각한 교육)가 결합된 원칙, 체계성과 순차성이 결합된 원칙, 직관성 원칙, 공고성 원칙, 역량성 원칙 등이다. 이는 모두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실용적인 원칙들로서, 중국어 교육의 특징과 결부시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교류이론은 언어교육에서 명시한 문화요소의 교육원칙을 결정지었다.

2. 제2언어 교육의 공통규칙을 연구하려면, 중국어 교육의 특수한 규칙을 연구해야 한다.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도 전체 제2언어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2언어 교육의 공통적 규칙, 특히 다른 언어에서 반복적 실천을 통해 이미 증명된 규칙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다른 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시스템원칙, 교류원칙, 인지원칙, 문화원칙과 감정원칙 등 5개 기본원칙³⁾ 등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적용된다. 이는 오늘날 중국어 교육의 새로운 발전 추세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다른 여러 학파의 교수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증적 관점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제시하는 제2언어의 교육규칙은 서양언어를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 특징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중국어 교육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고 중국어 교육 고유의 규칙(한자교육 등)은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육원칙을 확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다른 제2언어 교육원칙을 참고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중국어 교육의 실전을 기초로 중국어 교육 고유의 규칙성을 찾아가야 한다.

여기서 중국의 국어교육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외국어 교육의 성공적 경험을 흡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중국어는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순서점진(循序漸進)·온고지신(溫故知新)·학사결합(學思結

합)·인재시교(因材施教)·교학상장(教學相長)등의 중요원칙을 제정하여 관철시켰으며, 문학작품에 대한 대량의 독서와 암송, 숙련된 암송을 기초로 한 활용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확립했다. 사실 이러한 원칙과 방법은 모국어 교육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2언어교육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많다. 중국의 외국어교육계는 외국의 제2언어 교육의 성과를 잘 흡수하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삼는 학습자들의 특징과 결합하여 창조적으로 응용하였다. 외국의 학습자의 경험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학습자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하여, 교육목표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원칙을 응용한다.

교육활동은 항상 구체적인 교육목적, 교육단계, 교육조건과 학습자의 개인적 요소의 영향과 제약을 받는데, 단순하고 획일화된 방법은 통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탐구를 말살하는 것이다. 수많은 문제에 있어 우리의 인식과정이 아직 미완성단계인 상황에서 많은 견해들은 실천적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원칙은 사회발전과 과학적 진보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중국어 교육의 규칙을 근거로 일정한 교육원칙을 도출해내, 제2언어 교육의 특색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고정화, 모식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교육원칙들을 응용하여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제4절.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의 원칙

반세기동안, 제2언어로서 중국어 교육 분야의 중국학자들이 몇 대에 걸쳐 보편적인 교육원칙과 제2언어 교육의 공동규칙을 창조적으로 응용해왔다. 또한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대한 특수한 규율과 인식을 심화시키고, 외국의 각종 교수법의 경험을 거울삼아 장기적인 연구와 종합을 통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본교육원칙을 아래 10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1. 중국어의 기초지식과 기본적 기능을 익히고, 중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총칙으로, 언어교육의 근본적 임무와 대외한어교육의 목표를 구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1) 우선 언어를 소통의 도구로 삼아 가르치고, 학습하며,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에서 제창한 “교육과정의 의사소통화”를 최대한 실현하고, 학습자가 창조적으로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동시에 언어형식을 파악하고 습관을 양성하기 위해 청각구두법에서 강조한 구형연습 등의 기계적 훈련 방식을 적절하게 취한다.

(2) 능력의 함양은 지식 습득과 기능 훈련과 떨어져서는 이루어 질수 없고, 언어지식의 학습, 언어규칙의 흡수는 언어교류능력을 형성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이다. 고로 기초지식의 교육을 중시해야 하는데 이는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바탕으로써, 연습을 통해 언어지식을 기능과 능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3)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 속의 현실적 재료를 이용해야 한다. 기초단계에서도 학생의 수준에 상응하는 “원문”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 고급단계에서는 원문을 더욱 많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학습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거리에 있는 가게 명·표지·기차시간표·메뉴판 등을 교재로 삼는다면, 이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으로, 초급자의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학생 중심, 교사 주도로 감성적 요소를 중시하고, 학생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이 원칙은 교(敎)와 학(學)의 관계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은 학습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는 단지 “학”을 통해서만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교”는 반드시 “학”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칙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현된다.

(1) 학생의 특징과 수요에서 출발하여 교과과정과 교육요강을 제정하고, 교육내용·교재·교육방법을 확정한다. 학습내용은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것 이어야 하고, “학이치용(學以致用)”이 실현될 때 비로소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다.

(2) 학생의 개인적 차이를 연구하고, 인재시교(因材施教)의 원칙을 따르고, 학습방법을 지도하며, 학생의 자각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3) 교실에서는 부담 없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계발교육을 통해, 학생의 지적능력을 발전시키고, 학생활동 위주의 적극성원칙을 구현한다. 조화로운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의 감성적 요소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심리적 장애요소를 제거한다.

(4) 학생이 교육계획의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개선시킨다.

(5) 학생의 오류와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로 교정하되, 그 실수의 성격과 발생장소에 근거하여 교정을 하고 방식과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듣는” 교사 중심 교육의 전통이 있는 중국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서양의 일부 교수법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아 학생 중심 교육만을 강조하고, 교사의 역할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학교 교육의 범

위 안이나 교실 교육의 형식 하에서, 교사는 교육활동의 주체로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된다. 언어교사의 주도적 역할은 주로 조직, 자극, 시범, 참여의 지도 역할에서 표현된다. 교사는 교육요강의 요구에 따라 교재 연구, 교수방법 확정, 수업내용 계획을 진행해야 하고, 또한 자신의 학생의 특징을 파악하여 끊임없이 학생의 심리적 장애를 제거하고 학생의 학습 자발성을 유발시켜야 한다. 또한 목표어의 사용에 있어 학생이 모방하고 학습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교실 수업 활동에서 평등한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이 언어를 사용할 때 생기는 실수를 성실하게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이 원칙의 정신과 본질은 교육활동의 두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3. 구조, 기능, 문화가 서로 결합된 원칙.

이것은 최근 중국학자가 중국어 교육에 종사한 경험에 근거하여, 종합하고, 연구해서 얻어낸 교육원칙이다. “구조”는 언어구조를 말하는데, 문법구조와 의미구조를 포함한다. “기능”은 언어를 이용해서 하는 일, 즉 언어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완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임무를 말한다.(여기서 “상황”이란 통상적으로 일정한 교류장소, 교류대상과 교류 목적을 가리킨다. 기능은 상황을 떠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구조, 기능, 문화의 세 분야 중 우리는 상황을 기능의 일부분으로 연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언어교육 범위 안의 문화를 말하고, 주로 다문화교류 중에 문화의 차이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문화요소와 목표어 국가의 기본정세와 문화배경 지식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주요 교육내용을 개괄했고, 이 삼자의 결합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70년대 초 윌킨스의 《의미-기능적 교수 요목》³⁾에서 유발된 구조와 기능의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 구조와 기능 이 두 가지 모순은 서로 대립되면서도 상호의존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구조는 기능을 표현하는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며, 기능은 구조를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의사소통에서 이 양자는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조, 기능,

3) D.A.Wilkins, 《Notional-Functional Syllabus》,1972

문화의 “삼결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기초다. 국내외의 장기적인 중국어 교육의 경험이 증명하듯 초급단계에서 시작해서 체계화 되고, 순차적인 언어구조의 학습을 통해 언어규칙을 익히는 것이 제2언어 학습자가 비교적 빠르게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관건이 된다. 이와 반대로, 초급단계에서 구조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구조교육의 체계성을 혼란시킨다면 중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 기능은 목적이다. 언어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구조는 기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교육은 반드시 기능교육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난다. 구조교육은 그 중점을 구조분석에 두지 않고, 규칙을 조립하여 표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한다. 인류의 언어활동은 이념에서 언어형식의 순서에 따라 기능에서 출발하여 구조학습을 진행하는 것이지, 형식부터 이념까지의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 교육구조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기능 교육을 중점으로, 구조의 체계성을 고려하고 기능의 체계성에 유의해야 한다.

(3)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의미와 언어사용에 대한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의 일부분인 사회언어능력, 회화능력과 전략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이는 모두 문화교육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문화교육은 언어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문화요소를 드러내고, 문화배경지식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구조, 기능, 문화의 결합은 반드시 언어교육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급단계는 구조에 대한 학습을 위주로 하고, 중급단계에서는 기능 교육을 강화하고 구조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고급단계에서는 문화교육, 특히 문화배경지식의 교육량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4. 중국어 학습 환경을 강화하고, 중국어 사용을 확대하여, 자발적 학습과 자연적 습득을 결합하는 원칙.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히 교실수업에 의존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 환경의 유무와 좋고 나쁨, 학습자의 목표어와의 접촉기회와 목표어의 사용량이 직접적으로 언어 학습효과에 영향을 준다. 설령 목표어를 사용하는 자연적 환경이 조성되어도, 어떻게 의식적으로 언어 환경을 이용하여 언어의 자연적 습득을 촉진시킬 것인가는 여전히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목표어의 언어 환경이 결핍된 상황에서는 더욱 여러 방면에서 언어 환경을 창조하여 학습자의 학습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크라센의 학습과 습득의 가설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가설과 자연 교수법, 암시 교수법 등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사실상 자연습득 현상이 존재하고 있고 언어이용 중에 무의식적으로 익힌 학습방식이 목표어의 어감을 늘리고,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 및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 언어 지식에서 시작하여 언어구조형식에 대한 자각적 학습을 강조하는 정규학습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채택해야 한다. 정규의 자각적 교실 수업을 위주로 하는 상황에서, 자각적 학습과 자연적 습득을 결합시킨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를 위해 반드시 중국어 학습 환경을 강화하고, 중국어 사용을 확대하며, 과외활동과 사회언어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실 안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육활동과 연결하여, 학습자에게 중국어 이용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내와 교외에서 학습과 습득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국어 교육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학습자의 중국어와의 접촉기회와 사용량을 더 늘리는 것이다.

5. 세밀한 강의와 많은 연습으로 언어지식의 지도하에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의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

제2언어의 학습은 “규칙의 학습”과 “습관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인식되는데, 이는 교실수업에서의 강의와 연습, 지식과 기능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반영한다.

“정강다련(精講多練)”은 60년대 초 북경어언대 교수가 종합하여 도출해낸 대외 한어교육 원칙이다. “精講”은 교사의 지식강의에 관한 것이다. 적절한 이론지식과 언어규칙을 소개하는 것은 성인의 제2언어 학습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연습 역시 이론과 지식의 지도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식에 대한 강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설명의 방법으로 우리는 주로 귀납법을 주장하지만, 연역법도 배척하지는 않는다. “多練”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혹은 방과 후에 진행하는 대량의 연습으로 언어 이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연습의 방법으로 우리는 종합적이며 의사소통 중심의 연습을 주장하지만, 한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습도 필요하다. “精講多練”의 원칙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실천적”원칙을 구현했다.

언어수업이 기능 수업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언어교육은 기능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언어 수준이 보편적으로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원칙은 초보단계에서 시작하여 중·고급단계까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 훈련은 단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기능의 훈련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언어사용 규칙과 회화규칙, 전략적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훈련을 말한다.

6. 문장과 텍스트를 중점으로 음성·문법·어휘·한자 등에 대한 종합적 교육원칙.

이 원칙은 언어요소의 교육으로 이어진다. 음성, 문법, 어휘의 교육은 단계에 따라 다소 편중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음성교육단계, 문법교육단계 등 단계별 교육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모든 요소는 문장이나 텍스트로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소통의 도구 역할을 비교적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과 텍스트, 이 두 언어단위를 중점으로 음성·문법·어휘를 종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주장한다. 문장은 의사소통 중에 완전한 의미를 표현하는 가장 기

본적인 단위며 음성·문법·어휘가 종합된 것이다.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서도 문형을 통해 언어의 조합규칙을 비교적 잘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때문에 제2언어에서 문장은 여전히 교육의 중점사항이 된다. 텍스트언어학의 출현에 따라 언어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었고, 제2언어 교육 중의 전통적인 문장 연습 외에, 회화 훈련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텍스트 교육은 하나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지금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아직 교육에 활용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언어의 종합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교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7.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요구는 단계에 따라 편중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회화체와 문어체가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네 항목의 기본적 기능 훈련의 관계와 회화체와 문어체 학습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교수법의 한 학과는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강조하며, 문어체 학습을 강조했고, 또 다른 학과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강조하고 회화체 교육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기능과 회화체와 구어체의 상호 촉진과 제약의 관계가 모두 의사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면적인 요구, 조화로운 발전을 주장하지만, 학습 단계마다 포인트가 다르다. 초급단계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중점으로 하는데, 특히 듣기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언어학습의 규칙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자를 인식하고 쓰는 이 특수한 문제 때문에 중국어교육은 시작부터 읽고 쓰는데 긴장을 풀 수 없다. 중급단계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이 골고루 중요하고, 고급단계에서는 읽기 쓰기에 더 집중되긴 하지만 듣고 말하기에 대한 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문체에 있어서는, 초급단계에서 지나치게 회화체인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기본구조를 파악하는데 불리하다), 지나치게 문어체인 문장을 사용해서도 안된다(어려운 작업이고, 현실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결핍된다). 회화체와 문어체를 모두 사용하는 “중성”문체를 학습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중급단계 후반부터는 이 두 문체의 구분과 전환을 강화하고, 고급단계에서는 특히 문어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대상, 학습 목표, 학습 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구어체와 문어체의 중요도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8. 모국어와 중국어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교실수업에서 엄격하게 모국어와 매개어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

이 원칙은 목표어의 교육과 모국어 혹은 매개어와의 관계에 관한 원칙이다. 연상주의 심리학을 기초로 하는 직접 교수법에서는 제2언어 교육에 있어 목표어와 객관적 사물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언어의 이해나 표현에서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목표어를 이용하는 사고 습관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국어의 존재는 기정사실이고, 모국어의 목표어에 대한 전이작용을 피할 길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모국어의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할 것인가이다. 모국어와 매개어의 이용은 주로 교재편집이나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진행되는 언어비교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중점방향을 확정하는 것이다. 또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가 수업에서 소량으로 모국어와 매개어를 이용하여 난점을 설명하기도 하다. 그러나 교실에서 교사는 모국어와 매개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량의 모국어로 문법을 설명하고, 모국어를 통해 중국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것은 절대 언어교육의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중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엄격하게 “몰입식 교수법”의 정신을 구현해야 하고, 최대한 목표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번역연습 외에는 모국어나 매개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점진적 교육, 나선형 교육, 반복적 교육 원칙.

이 원칙은 교육내용의 편성과 순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언어교육은 구조, 기능, 문화를 막론하고 모두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가까운 것에서 멀리 있는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의 순차적인 원칙을 구현하여 학생이 학습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언

어지식과 기능의 습득은 절대 한 번에 완성할 수 없고, 교재 편성과 교실 수업에서 반복적이고, 재현하고, 옛것으로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선형성 안배는 반복을 중시하지 않았고, 이미 실천을 통해 언어학습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0. 객관성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교육기술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는 원칙.

언어교육에서 교구, 그림, 사진, 사물과 동작 등 객관적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이해시키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주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데도 유리하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화된 교육기술 수단은 제2언어 교육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의 중국어 교육에 대해 언급하자면,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변두리 지역이나 발달이 덜 된 지역일수록 현대화된 교육수단, 특히 네트워크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중국어 교육의 주된 자원은 여전히 교과서에 국한되어 있고, 교육수단도 교사의 강의와 연습에 의존하고 있다. 주교재에 부합하는 독해, 듣기 교재가 많지 않고, 음성, 영상, 컴퓨터, 멀티미디어의 보조교재는 더욱 부족하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원거리 교육도 이제 막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중국어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현재 어떻게 중국어의 특징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교육기술 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위의 열 가지 원칙 중에, 처음 3개가 총칙이고, 나머지 7개가 구체적 원칙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어 교육에서 생겨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다른 각도에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수법 체계의 윤곽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1) 李国文, 《老刀枪》, 1994. 《인민문학》 제 11기에서 발췌.
2) 胡明物, “대의한어교육에 있어 문화요소”, 《언어교육과 연구》, 1993년 제4기
3) 東定芳 외, 《현대한어교육》, 상하이외국어교육출판사, 1996